



‘보성차밭 빛축제’ 화려한 야경 17일 오후 제 12회 ‘보성 차밭 빛 축제’ 시작에 맞춰 화천면 영천리 봇재다원에 설치된 200만여개의 발광 다이오드(LED) 전구가 불을 밝혔다. 어둠이 깔린 녹차밭과 그 위에 내려앉은 눈,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녹차밭 야경은 내년 2월 1일까지 볼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해질 17:23, 달뜨기 03:19, 달지기 14:33

Regional weather forecast map of Korea with city names and weather icons.

Table with weather detail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forecasts.

취업한 학생, 수업 빠지고 기말고사 면제방법 고민
취업 못한 학생은 위장 취업계 내고 채용 시험 준비

■ 극심한 청년실업 속 대학가 새 풍속 눈길

극심한 청년실업이 대학가에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졸업예정자로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한 대학생들은 수업을 못 듣고 시험을 안 치러도 졸업하는 방안을 찾느라 고민하는 반면, 취업 준비생들은 수업을 따라가며 취업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위장 취업계'를 내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광주지역 C대학 졸업예정자인 A씨는 지난 15일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취업생 발목잡는 우리학교'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졸업예정자로 최근 경기도에 취업했다며 해외 출장 때문에 기말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 학점을 낼 수 없다"는 학교측 답변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터넷과 문서 서식 사이트 등에는 취업계 내는 방법이 공유되고 '학교 제출용' 재직증명서 판매도 진행되는 실정이다. 최근 취업포털 사람인의 대학 4학년생 5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0.8%(168명)은 '가짜 취업계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다.

광주~나주 영산강 '3등급'
전남~경남 섬진강 '1등급'
환경부, 수질오염총량 목표 확정

환경부는 17일 '영산강·섬진강 수계 3단계(2016~202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도 경제지점별 목표수질'에 대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물에 녹아 있는 인 화합물의 총량)을 확정·고시했다.

EBS 영어 어휘수 절반으로 줄여
수학도 교과서 학습량·내용 조절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EBS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를(5668단어) 2017년까지 교과서 어휘(교육과정 기본어휘 2988단어±20%) 수준으로 줄인다. 또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의 지문이나 복잡한 문법의 지문도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천기누설 약초보감' (Heavenly Secret Herbal Book) featuring a grid of herbs and promotional text.